

보도시점 2023.12.29.(금) 09:00 배포 2023.12.29.(금) 09:00

[2023년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돋보기]

방통위,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 강화

- 방통위, 올해 시각·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 20,580대 보급 -
- 비실시간(VOD) 및 교육방송물에 대한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확대 -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, 이하 '방통위')는 '23년 소외계층의 미디어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시각·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를 20,580대 보급하고, 비실시간(VOD) 장애인방송 등에 대한 제작 지원을 하였다.

시각·청각장애인이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 기능이 내장된 맞춤형TV를 전년도 15,000대에서 5,000여대 확대하여 20,580만대를 보급하였다. 올해는 보급 대상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체 시각·청각장애인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.

또한 장애인의 미디어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실시간방송(VOD)에서도 장애인방송(폐쇄자막·화면해설·한국수어)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파방송 (KBS·MBC·SBS·EBS)뿐만 아니라 종합편성방송사업자(TV조선·JTBC·채널A·MBN)까지 확대하여, 장애인방송 콘텐츠를 각 방송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.

이와 함께, 초·중·고교 장애인의 기본학습권 보장을 위해 EBS 교육방송물을 장애인 교육방송 콘텐츠(폐쇄자막·화면해설)로 제작하여 보급하였고, 발달 장애인의 장애특성(지적·자폐성)을 고려하여 영유아기, 학령기, 중·노년기를 구분하여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('23년 48편)하였다.

< 발달장애인용 맞춤형 콘텐츠 예시 >





< 발달장애 자녀들의 학교 이야기(학령기) >

< 가전제품 올바르게 사용하기(성인기) >

교육방송 콘텐츠와 발달장애인 콘텐츠는 EBS 장애인서비스 홈페이지 (ebs.co.kr/free)를 통해, 발달장애인 콘텐츠는 발달장애인 콘텐츠 전문 사이트 다모아(damoa.or.kr)를 통해서도 누구나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다.





< EBS 장애인 교육방송물 전용 홈페이지 >

< 발달장애인 콘텐츠 전문 사이트(다모아) >

방통위는 2024년에는 시각·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를 올해보다 12,000대 더 많은 32,000대를 보급하고, 장애인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. 끝.

담당 부서	방송기반국 미디어다양성정책과	책임자	과 장	곽진희 (02-2110-1260)
		담당자	사무관	김은영 (02-2110-1298)



